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 시작

황인홍 무주군수 "올해도 무주 발전 · 군민 행복 위해 끊임없이 도전"

무주군이 20일 무풍면에서 소통과 공감 행정 추진을 위한 '2025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를 시작했다.

무주군이 20일 무풍면에서 소통과 공감 행정 추진을 위한 '2025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열린 대화는 지역의 현안을 살피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첫날 대화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주민 등 2백여 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무주군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버스정류장 이동을 비롯한 △진입로 가로수 처리, △마을회관 신축 등 마을별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 · 응답의 시간(군민과의 대화)을 가졌다. 또 고도마을 등 6개 마을을 직접 찾아 △안길 포장 등 주민 숙원 사업들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도 무주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한 해를 만들 것"이라며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문제와 기후변화에 집중해 군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풍면에 조성되는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는 임대형 스마트팜과 육묘장 등을 갖추고 여름딸기와 샐러드용 상추를 재배하는 시설로 활용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청년 농업인 유입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기반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태권도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환 · 설립되는 무풍고등학교에 대해 언급하며 전국,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는 만큼 학교와 지역사회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 군수는 "지역 현안을 두루 나누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서로에게 희망을 심고 무풍면, 더 나아가 무주군 발전의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무풍면이 반딧불사과와 옥수수 고장을 넘어 첨단 농업과 교육, 무주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연특별시 무주는 우리가 가진 자연과 환경, 역사와 전통을 토대로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을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름"이라며 "역량을 모아 올해도 우리 무주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전했다.

"소통과 공감 행정을 위한 2025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는 오는 2월 11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이 자리를 통해 모아진 주민들의 의견은 관련 부서 검토와 조사, 분석 등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1월 21일에는 적상면, 22일에는 부남면, 2월 7일에는 설천면, 10일 안성면 11일에는 무주읍에서 진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 성료

최훈식 장수군수, 7개 읍 · 면 순회하며 주민들과 소통

장수군은 새해를 맞아 각 읍 · 면을 순회하며 개최한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가 지난 17일 장수읍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4일 계남면을 시작으로 7개 읍 · 면에서 진행됐으며 군민들이 건의사항을 제시하면 최훈식 군수와 관계 부서장이 현장에서 즉각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질의응답식으로 운영됐다.

최 군수는 각 읍 · 면 경로당 등 지역 시설을 방문해 새해인사를 전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마을진입로 도로포장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부터 지역 현안까지 군민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계남 말모산 꽃동산 등 경관 조성 △계북 지소담마을 안길 가드레일 설치 △장계 도장골 오거리 회전교차로 조성 △천천 장수만세퇴비 무상공급 지원방법 개선 △번암면 소재지포함 주변마을 LPG 배관망 설치 △산서 오수천 자동보설치 △장수 공용터미널 대합실 내 발열의자 설치 등이 있었다.

최 군수는 건의된 생활불편 사항 및 애로사항 등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신속한 현장 확인과 건의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건의자에게 수시 통보해줄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내비쳐 군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최훈식 군수는 "민선8기 출범이후 장수군민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군정이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

황인홍 무주군수, 유치 기원 챌린지 동참

황인홍 무주군수가 17일 'GBCH 챌린지'에 동참하며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했다.

황 군수는 "도민의 뜻모아 힘모아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를 외치며 전북의 도전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2036 하계올림픽이 전북에 유치된다면, 올림픽이 개최되는 동안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전북을 방문해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태권도를 매개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 전북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36 하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북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도민 모두의 힘과 역량을 모아, 2036 하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반드시 이루자"라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다음 주자로 최경식 남원시장과 최영일 순창군수를 지목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랜프상권서 장보고 상품권도 받아요"

설맞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무주랜프상권 열장(열심히 장보기 이하 열장행사) 상품권 환급행사가 오는 22일(예산 소진 시)까지 3일간 개최된다.

상품권 환급행사는 무주랜프상권 내(무주읍 장터로, 적천로, 주계로, 단천로, 향학로) 접포에서 물품구매 및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 기간 내(1.20.~22.) 영수증 합산 5만 원 이상이면 무주상품권을 지급(최대 2만 원)하는 것으로, 무주군 무주읍 상권활성화 추진단(주계로 48)에서 구매영수증(카드 및 현금 영수증, 간이 · 전자 · 모바일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등은 제외)과 신분증 확인(13:00~17:00) 후 상품권으로 교환하면 된다. 5만 원 이용 시 무주사랑상품권 1만 원, 10만 원이상은 2만 원을 지급한다.

26일(선착순 100명 한정)에는 뱀띠생(신분증 확인)에게 '떡국떡'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 21일과 26일 당일 무주읍 상권활성화 추진단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따뜻한 '한 컵 어묵'이 지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지역농산물 설 명절 기획전 운영

진안군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진안로컬푸드직매장에서 '지역농산물 설 명절 기획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22일~28일까지 전주 호성점(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30)과 진안점(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37-9)에서 진행된다.

농약 잔류 검사 등을 거친 안전한 지역 농특산물로 구성된 설 선물 세트를 구입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 선물 세트는 인기가 많은 축산물, 과일(사과, 곶감, 샤인머스캣 등), 가공품(참기름, 한과 등)을 포함해 10여 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주문은 직매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할 수 있다. 택배는 1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매장 방문 구입은 설 명절 전날까지 가능하다.

특히 24일~26일 10시에서 16시까지 진안로컬푸드 전주호성점 주차장에서는 설 선물과 제수용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열린다. 5개 업체가 참여해 꿀, 사과, 딸기를 비롯해 제수용 농산물들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후 명절 당일과 다음날인 1월 29일과 30일은 휴무로 운영하지 않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설맞이 이벤트 진행

진안군은 2025년 설을 맞이해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20일간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온라인(고향사랑e음) 또는 오프라인(NH농협)을 통해 진안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후 답례품을 주문하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이후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진안군 답례품 중 홍삼액 또는 완숙 토마토 5kg을 기존 혜택에 더해 추가로 제공한다.

당첨자는 이벤트 종료 후 2월 중 개별 연락을 통해 당첨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해주신 기부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설 명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이번 이벤트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건의안 채택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20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 ·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쌀 자급률을 하락시킬 수 있고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안을 통해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라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라 △농가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를 토대로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경로당 '떴다방' 피해 예방 집중 홍보

진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20일부터 5일간 시니어 감시원들과 함께 읍 · 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일명 '떴다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떴다방'이란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의료기기 제품 등을 허위, 과대광고로 불법 판매하는 곳이다. 공짜 선물, 효도관광, 의료기기 체험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 후 식품을 약처럼 속여서 팔아 노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 ·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체험기를 내세우는 과대 · 광고 등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부정불량식품(1399) 또는 진안군청 위생팀(063-430-2316)에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떴다방으로 피해를 입은 노년층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주의 사항을 숙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